

WEA세계지도자대회 반대 확산

다원주의 WCC와 반기독교적인 가톨릭과 일치 선언 등 이유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WEA세계지도자대회를 앞두고 한국교회 일각에서는 WEA의 정체성을 문제 삼아 반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주된 이유는 WEA가 종교다원주의 WCC와 뜻을 같이하고 협력하며,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로마 가톨릭의 교리와 제도를 존중하고 그들과 일치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즉 이 같은 WEA의 정체성과 추구하는 노선은 역사적인 정통 기독교회에 대한 반역 행위라는 것이다.

역사적인 정통기독교회는 종교개혁자 루터, 존 칼빈, 존 너스 등등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로마교황에 대하여 적그리스도로 규정하고, 로마 가톨릭의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교리와 제도에 목숨 걸고 피 흘리며 저항하고 성경적으로 개혁해서 초대교회로 회복하여 오늘날까지 명맥을 이어왔다. 그런데 WEA의 경우는 복음주의 기독교회라고 하면서도 로마 가톨릭의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도 선한 마음과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행위구원설이나, 화체설,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도 형제라는 등등 수많은 비 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교리와 제도를 잘못이라 책망하지 않고 도리어 존중하고 있다. WEA의 그 같은 행위는 목숨 걸고 피 흘리며 일으켜 세운 역사적인 정통기독교회를 도리어 무너뜨리는 역적행위이며, 복음주의 가면을 쓰고 저지르는 반역주의라는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하고 개최하려는 WEA세계지도자대회를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WCC와 로마 가톨릭과 연합하여 개종전도금지를 선언한 것을 들고 있다. 이 같은 WEA의 행위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마 28:19) 하신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라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로 막는 대적 행위라는 것이다.

복음주의를 지향하던 WEA가 이렇게 탈선한 배경과 원인으로는 “신복음주의는 근본주의가 믿는 모든 전통적 교리를 신봉하나 사회적 철학을 포함시켰다”(세계복음주의운동의 흐름/김상복 목사)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1900년대에 들어서서 자유주의 신학이 미국교회에 정착할 때, 이를 대항하여 성경을 지키고자 나선 부리들이 생겨난 것이 근본주의자들이고, 이들 근본주의자들 가운데서 또 하나의 다른 신학노선을 주장하며 생겨난 그룹인 신복음주의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WEA이다. 이들 신복음주의자들은 근본주의자들의 배타적인 태도에 반하여 자유주의를 포용하고, 종교다원주의 WCC와 협력하고,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와 제도를 문제 삼지 않고 존중하고, 이들과 일치를 도모하는 폭넓은 교제를 생명으로 하여 (WEA의 역사를 1846년이라고 주장하나) 1961년에

WEF(World Evangelical Fellowship/세계복음주의협의회)를 창립했으며, 2001년에 WEA(World Evangelical Alliance/세계복음주의연맹)로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WEA·WCC 반대운동 연대」 회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교회는 WEA가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은 성경적 역사적 정통기독교회가 아님을 분명히 깨닫고 그 정체에 대하여 명확히 알아야 한다.

둘째, WCC를 반대했던 한기총이 ‘WCC와 교황청’의 입장을 수용한 WEA세계지도자대회를 유지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기모순 행위이며 한국교회의 반목과 분열을 부추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WEA한국대회를 즉각 중단하라.

셋째, 한기총은 한국교회의 연합기구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복음주의 신학으로 재부흥하며 불의나 비성경적인 사상과 타협하지 말기를 촉구한다.

넷째, 잘못된 포용주의와 혼합주의의 신학이 한국교회에 뿌리내리지 않도록 WEA세계지도자대회의 개최를 강력하게 반대하며 즉시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WEA가 ‘세계복음주의 연맹’으로 올바른 지리를 잡기 위해서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WCC와 교황청’의 입장을 수용한 것을 철회하고 진정한 복음주의로 거듭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참된 신앙의 기본과 핵심’



조용목 목사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히 11:4~7)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기본과 핵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세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입니다.

첫째, 신앙의 기본과 핵심은 대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벨은 대속의 은혜와 진리를 믿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므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행동을 통하여 대속의 은혜와 진리를 계시하셨습니다.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낳았으며 이 중대한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구속의 진리를 믿고 그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부활하셨다. 그의 흘리신 보혈로 내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과 핵심입니다.

둘째, 신앙의 기본과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구체적인 내용을 간추려 보면 세 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는 경건치 아니하고 강박한 사람들에게로 가서 장차 심판하려고 오실 주님을 전파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분주해서 에녹처럼 살기는 어렵다는 변명 구실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셋째, 신앙의 기본과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미래에 다가올 일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 일에 완전하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영적인 면에서 두 부류로 나뉘어졌습니다. 인본주의자이며 살인자인 가인의 후손들과, 신본주의자이며 경건한 생활을 하는 셋의 후손들입니다. 사람이 점점 반성하여지면서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세속적인 가인의 후손들과 혼인을 하므로 급속도로 인간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본주의적 사회가 되어갔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뿐 아니라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섬기는 우상숭배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많고 그 미움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심판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경건과 이해를 조율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였습니다. 대홍수를 예상해 하는 아무런 징조도 없었지만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방주 짓는 일에 협력했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오랜 세월을 걸쳐 엄청난 물자를 투입하여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방주를 완성하였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노아의 식구들이 모두 방주에 들어간 후 칠일이 지나자 드디어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온 세상은 물에 잠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역한 자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벨처럼 구속 신앙을 가지고,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가올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대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농협 302-0928-2103-51 / 예금주 임종달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6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 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신입생
- ⑥ 반명함판 사진 4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2015. 12. 21(월) ~ 2016. 02. 18(목)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2016. 02. 18(목)
- ③ 합 격 자 발 표 : 2016. 02. 19(금)-개별통보
- ④ 전 형 료 : 20,000원(계좌로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총회목회대학원 졸업 후 목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 ④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5. 12. 21(월) ~ 2016. 02. 18(목)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남원중앙교회 태국 치앙마이 라후족 단기선교

복음과 물품 전하고 예수 사랑 전해

전북지방회 남원중앙교회(담임 서정복 목사·교단 선교부장)는 지난 설 연휴기간동안 선교지 태국 치앙마이를 찾아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경제적 빈곤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돌아왔다.

남원중앙교회 담임 서정복 목사와 성도 33명은 지난 2월 7일(주일)부터 12일(금)까지 치앙마이 높은 산 속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 라후족 5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한 교역자들과 선교사, 성도들이 원주민들을 일일이 끌어안고 기도해 주며 우상 사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총을 위해, 라후족복음화를 위해, 신병 지유를 위해 뜨겁게 기도해 주었다. 남원중앙교회는 미리 준비한 물품들을 전하고 다양한 게임과 공연을 함께하며 라후족과 한 마음이 되었다. 라후족 고아들이 모여 살고 있는 열악한 환경의 고아원에는 화장실과 샤워장 건축비(250만원) 등을 지원하고 이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남원중앙교회 태권도시범단의 태권무와 격파시범은 큰 관심과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남원중앙교회 담임 서정복 목사는 치앙마이에서 복음전파를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부부 5가정과 함께 식사를 하며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1명의 선교사가 가정에는 등록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 배격

전라지방회

전라지방회(회장 김영식 목사)는 지난 15일 순복음장신교회(담임 김영식 목사)에서 2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지방회 총무 정찬식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임종호 목사의 기도, 그리고 지방회 증경회장 최형택 목사의 설교와 증경회장 김갑신 목사의 축도로 순서로 진행되었다. 김 목사는 계 3:14-22 말씀을 본문으로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라오디게

아교회를 향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토하여 버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므로 초대교회 때처럼 안디옥 학파로 돌아가서 영적인 분별력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여서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를 배격하자"고 설교하였다. 이어진 월례회에서는 각종 회부처리와 다음 달에 있을 지방회 정기총회와 관련한 안건들을 처리했다. 모든 순서를 마친 지방회원들은 순복음 장신교회의 후원으로 소문난 인근 맛집으로 옮겨 오찬을 함께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WEA대회 무산 위해 기도

충서지방회

충서지방회(회장 차흥식 목사)는 지난 15일 순복음송죽교회(담임 이인복 목사)에서 2016년의 첫 월례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예배는 총무 김영관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김현덕 목사의 기도, 그리고 교단 총회장 진동용 목사의 설교와 지방회장 차흥식 목사의 축도로 순서로 진행되었다. 진동용 목사는 마 16:13-17을 본문으로 '참된 복'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하여 "목회자들의 참된 복은 큰 교회의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많이 가지는 것도 아니

며 그리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며 베드로사도와 같은 신앙고백을 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WCC나 WEA 같은 어그리진 단체들에 대한 신앙노선을 배척하고 오직 성경대로 그리고 교단의 교리에 따라 목회의 길을 걸어야 참된 복을 누리는 목사들이라"고 설교하였다. 이어 열린 기도회를 통하여 WEA대회가 무산되기를 기도하였다. 그리고 순복음송죽교회에서 정성스럽고 푸짐하게 준비한 오찬을 나누며 2016년 2월 월례회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교역자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남수 목사)는 지난 16일(화)에 경기도 이천시 소재한 오성사(장로회)(담임 박흥열 목사)에서 2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장 김남수 목사(맑은빛교회)의 사회, 정미자 목사(샘교회)의 대표기도, 사모일동의 특송에 이어 김기인 목사(벤엘교회 담임)가 설교했다. 김 목사는 사 9:7-15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갑골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이 모든 회원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역자

가 될 것"을 간절히 부탁했다. 이어 회원들은 나라와 민족, 교단과 정책위원장, 총회장과 지방회 각 교회를 위해 헌신으로 기도했다. 배종화 목사(주사랑교회)의 헌금기도, 김기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바로 이어 월례회를 갖고 지방회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등 각종 회부들을 처리했다. 주요내용은 상호 업무 담당자를 세우는 것과 기타 회원명부 관련 및 지방회 필수 구비서류를 회원들에게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한편 월례회가 열린 오성사(장로회)는 농아촌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며, 노인요양시설도 갖추는 등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 교단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교단 총회장 진동용 목사
지도교문 김인찬 목사
회장 신재영 목사
상임총무 김견수 목사
- 대표교문** 조용목 목사(은혜와진리교회)
증경총회장 김상용 목사(청주중앙순복음교회)
유봉수 목사(은혜와사랑의교회)
배진기 목사(안디옥교회)
임종달 목사(전주순혜와진리교회)
최광덕 목사(일산은혜교회)
이청재 목사(전부제일교회)
김인규 목사(은혜와평강교회)
김용덕 목사(영동제일교회)
총회장 진동용 목사(새소망교회)

2016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 지도교문** 김인찬 목사(청신교회)
조남영 목사(가평순복음교회)
정부용 목사(대림번영교회)
증경회장 엄기설 목사(은혜와천양교회)
김희대 목사(간현교회)
- 회장** 신재영 목사(새김전교회)
상임위원 신동숙 목사(순복음임마누엘교회)
오승목 목사(천안서복교회)
황용덕 목사(은혜와평강교회)
정석현 목사(평강교회)
김임복 목사(순복음무등교회)
- 백영자 목사(녹동순복음교회)**
부회장 김기진 목사(예천순복음양문교회)
서정복 목사(남원중앙교회)
상임총무 김견수 목사(순복음예수나라교회)
상임부총무 윤혜영 목사(순복음주천미교회)
김바울 목사(순복음진리교회)
사무국장 최정식 목사(순복음복원교회)
실무총무 김병호 목사(순복음행복한교회)
신복희 목사(순복음화평교회)
박종렬 목사(오성사(장로회))
윤성수 목사(전주은평교회)
서기 성기찬 목사(동울산순복음교회)
- 재무** 조은혜 목사(순복음빛교회)
회계 양은례 목사(창조교회)
감사 김종연 목사(은혜교회)
최남성 목사(동강순복음교회)
회원 권택선 목사(순복음하은교회)
김연옥 목사(행복한선교회)
이화숙 목사(전주순복음우리교회)
임영철 목사(순복음승리교회)
홍현자 목사(사랑과평화교회)
조병희 목사(기장순복음교회)
준회원 정한무 전도사(순복음빛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도시지역 미자립교회(성도수 20명 이하) 및 농·어촌, 산간벽지, 낙도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사오니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을 주시면 적극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문의 : 회장 신재영 목사 010-4420-8650 / 상임총무 김견수 목사 010-3698-5764

■ 생명의 말씀 ■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롬 1:16-17)



김 양 인 목사

· 목양제일교회
· 광주지방회 회장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당시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제국의 심장인 로마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가 로마서를 써 보낸 것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의 방문 계획을 사전에 알려서 마음의 준비를 하게하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는 도합 16장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심사상은 하박국서 2장 4절에 근거한 것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입니다.

한자말로 “이신칭의”(似信稱義)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복음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로마서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 복음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을 전파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무덤에 잠사 되신 지 삼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으며 언제나 함께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활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단지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활을 불신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만 남습니다. 제 한 몸도 구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자라면 메시아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체험을 통해 확신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죽이는데 동참하기까지 했던 그가 돌연히 나사렛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 된 것은 그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 것도,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찾아 오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 받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율법 이외에도 여러 가지 번거로운 규례를 만들어서 지키느라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서 사람이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값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철학이나 종교나 도덕이나 고행이나 선행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복음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려면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셨을 때 그 좌우편에도 강도가 한 사람씩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사람이 은혜를 입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죽시로 이르시기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눅 23:43)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둘째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키려는 소원이 있더라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의를 행하는데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절망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은 자기들의 무능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자기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도를 깨치고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거울을 통해 자기의 죄인됨과 절대 무능을 깨달은 사람은 행복하고 복음을 믿습니다.

성경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10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다 치우쳐 함께 무악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도 구원을 받으려면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 받은 성도들은 율법을 버려도

무방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의롭게 되기 위해서 또는 구원 받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에게 율법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지는 쉽고 가벼운 멍에가 되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복음의 진리는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신 대로 점점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복음을 믿어야 할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 도리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별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옷 입게 되어 하나님의 법전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이제 주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뿐 아니라, 사도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들에 대한 생계의 문제는 중요하다. 이 문제는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가기를 바라며, 입주 업체들의 새로운 활로를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도와주기 바란다.

북한은 남/북한 간의 문제만이 아님을 인지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드는 천문학적 비용으로 주민들의 빈곤과 기아를 해결하는데 사용하기 바란다.

그리고 무력으로 남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낡은 방법으로 체제를 연명하려 하지 말고, 남북은 물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여, 국제 사회에서 ‘불량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제대로 된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

동 정

연세대, 제18대 김용학 총장 취임



연세대학교 제18대 김용학 총장이 지난 1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내외 관계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김용학 총장은 “존중하고 존경받는 대학”, “미래를 이끌어 가는 대학”을 골자로 임기 중 추진할 대학발전 계획을 천명했다.

고기총 대표회장 유관제 목사



고양시 기독교총연합회 제47대 대표회장 취임감사예배가 지난 1월 마지막 토요일에 성광교회에서 드려졌다. 신임 회장 유관제 목사(성광교회)는 “앞으로 맡겨진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취임사를 전했다. 최성 시장(고양시)은 “고기총이 고양시의 위기와 갈등을 해결하는데 중장적 역할해줄 것”을 요청했다.

살롬나비, 혼합주의 선교 경계 촉구



살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살롬대표 김영한 박사)은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알라’와 ‘하나님’을 동일선상에서 보는 문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르며, 한국교회가 이슬람 내부자운동의 혼합주의 선교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부활절연합예배 ‘광림교회’서



한국교회 교단장협의회(대표회장 박무용 목사)는 지난 12일 임원 회를 열고 2016년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를 오는 3월 27일 서울 신사동 광림교회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장소 선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광림교회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교회에서 개최됨으로 절약되는 제정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사용되질 예정이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대북제재 목적의 개성공단 중단의 불가피성

북한은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2월 7일 국제 사회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이번에 발사한 로켓은 비거리 12,000km에 달하는 것으로, 미국 본토 전체를 사정권에 두므로, 매우 위협적인 사건이다.

이에 국제사회는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기에 바쁘다. 유엔안보리는 만장일치로 규탄성명을 채택하였고, 한/미/

일 정상들도 긴급하게 대북 제재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도 중의원/참의원이 ‘형의 결의문’을 채택함과 동시에, 일본 정부는 대북 인적교류 금지와 금융 제재 등 대북제재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결정하였다.

우리 정부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하였다.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개성공단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54,000여 명의 북한 근로자가 있고, 우리나라 기업은 124개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 당국에 수입되는 금액은 연간 1억 달러(한화 약 1,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12년간 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수입된 금액은 대략 6,0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정부가 발표하였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드는 비용이 회당 3,00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중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갔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개성 공단이 시작된 지, 13년 만에 우리 정부에 의한 ‘전면 중단’은 처음이다. 그로 인한 124개 입주 업체들의 손실과 가족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6년도 목사고시 공고

2016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류접수 : 2015년 8월 28일(금)까지

(1) 목사고시 청원서 : 총회 홈페이지(www.aogk.org) → 자료실 → 서식 다운로드 → 교단서식 → 15호 목사고시청원서 다운

(2) 구비서류 : 목사고시 청원서 참조

* 2부 작성하여 1부는 총회 고시위원회에 제출, 1부는 지방회에 보관.

2. 서류접수처 : 150-150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22나길 8 총회본부

3. 서류심사 : 2015년 9월 3일(목) 오전 11시

4. 오리엔테이션 : 2015년 9월 17일(목) 오전 11시 총회본부

5. 성경고시

(1) 논문 대신 성경고시 실시.

(2) 성경고시는 성경암송과 문제풀이로 함.

6. 목사고시 : 2016년 2월 22일(월) ~ 23일(화), 오전 10시 총회본부

7. 목사고시료 : 50만원

(1) 납부일 : 2015년 8월 28일(금)까지

(2) 입금계좌번호 : 국민 061701-04-17686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8. 목사고시 응시자격 :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목사고시 과목

(1) 구약학 (2) 신약학 (3) 조직신학 (4) 교회사 (5) 교회 행정학 (6) 목회 윤리학 (7) 헌법 (8) 기독교교육 (9) 교회성장학 (10) 면접 (11) 설교 실기(5분)

* 설교는 2부 작성(심사용 1부, 설교자용 1부) 목사고시 당일에 제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장 목사 진동웅 고시위원장 목사 김인규
총 무 목사 김병묵 서 기 목사 이석호

목양칼럼

서헌철 목사 // 장로회신학 학장

내가 믿어주지?

아래 마을 미장이가 천장에 회칠을 하다가 그만 회 한 방울을 그의 콧잔등에 떨어 뜨렸는데 꼭 파리 날개처럼 앉았다. 그 옆에서 도끼질을 하고 있는 한 친구에게 “어이, 내 코에 흙 좀 때어 주게.” 하고 코를 내밀자 “아리로 내밀어.” 하고는 한 방의 도끼질로 깨끗이 닦아 준 이야기가 슬금슬금 온 천하에 퍼지자 그만 임금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그 도끼질하는 친구를 불러 놓고 임금이 물었다. “나도 이렇게 코에 회를 발라 두었네. 자네가 도끼질로 깨끗이 치워보겠나?” “임금 같은 분은 어렵도 없습니다. 당신은 나를 만지 못하지요. 나의 실력을 정말 믿는 그 미장이 친구는 이미 죽고 있습니다.” “.....?(출처 : 주역의 말)

우리는 성경 역사 위의 글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은 아닐까? 물론 “방아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시간(막 9:14-29) 등 수많은 기록들을 본다. 그러나 연세대학교의 한태동 교수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는 내용에 대하여 번역상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 내용은 “크롬웰 장군 때에 번역된 ‘King James Version’의 영향을 받은 때문이라고 한다(출처=성서로 본 신학). 따라서 아버지의 믿음에 의하여 아들이 고침 받은 인상을 받게 함으로 “믿는 자는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는 자는 모든 병도 고칠 수 있다. 따라서 당신도 믿으면 초능력적인 힘이 생기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등으로 오해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죄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스스로에게는 질문을 상실한 것임을 지적하게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과장하며, 자못 하나님을 자기 필요에 의한 기호품 정도로 활용하는 인상을 받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자 행세를 하는 이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는 자기생각이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두고 잠정이 같은 예언을 하는 일 등이 성행하기 까지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자들의 뱃간 신앙이 그렇지 않아도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하여 세인들의 질타가 거센 마당에, 아쉬운한 교계에 기쁨을 퍼붓는 것과 같은 결과를 자아내기도 하며, 이러한 주장을 전도하는 일들로 교계는 더욱 혼란에 빠지고, 제도권 밖의 사람들로 하여금 노략의 기회로 삼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유사한 문제들을 야기하

는 근거를 제공한다하여도 재물만 소유하게 되면 그 재물로 그 어떤 도전도 막아내고 그 누구도 노예화 할 수 있다는 사고인 것이다. 이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자 지체하면서도 굴종의 삶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과연 그들은 누구란 말인가? 한국교계의 거대함을 이루고 있는 기관이나 지도자 등의 일부는 결코 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게 된다. 그로인하여 때로는 절망, 슬픔, 참담함까지도 갖기도 하지만, 너무도 당당한 그들의 모습에서 그만 할 말을 잃게 된다.

그러나 정암 박윤선 목사는 “성경으로 시작하고, 성경으로 진행하며, 성경으로 마쳐야 한다.”(출처 : 죽산 박형룡과 정암 박윤선)고 하였음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에서 새김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지? 내가 믿어야 된다?”가 아닌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다.”는 아주 기본적인 은혜부터 회복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의 은혜로써, 하나님을 자기들의 수하에 두는 것과 같은 미련함을 버리는 은혜를 누리도록하자.

“침자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



CTS, ‘앱 다운 감사’ 이벤트 진행

앱 다운로드 이벤트 참여시 2월 29일까지 다양한 경품 증정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는 CTS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CTS TV, 라디오JOY, CTS Y)을 부모님 휴대전화에 다운받아 드리는 ‘CTS 앱’ 다운 감사이벤트를 실시한다.

개역개정 성경이 무료로 제공되는 CTS 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Android)나 애플 앱 스토어(iOS)에서 ‘CTS TV’, ‘라디오JOY’, ‘CTS Y’로 검색해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는 앱을 다운받은 뒤 메인화면에 있는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고 간단한 후기를 남기면 된다.

오는 2월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CTS TV 앱’, ‘라디오JOY’, ‘CTS Y’ 앱을 다운받은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백화점 상품권, 찬양CD, CTS 유료VOD 1개월 시청권 등 푸짐한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CTS 홍보팀 정용혁 팀장은 “손안에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CTS 앱을 통해 모든 세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건강한 신앙인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CTS 앱을 비 기독교인들도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TS TV’ 앱은 CTS의 다양한 방송과 전국 주요 목회자의 설교를 청취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대표 앱 라디오 방송 ‘라디오JOY’와 청년감동채널 ‘CTS Y’는 24시간 찬양과 말씀을 청취할 수 있는 채널과 성가, 청년설교, 묵상, 성경강해, 지식콘서트 등 10대에서 70대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CTS 앱 특별 이벤트는 2월 1일(월)~29일(월)이며, 당첨자 발표는 3월 11일(금), 자세한 사항은 CTS 홈페이지(www.ctstv)나 02-6333-1005로 문의하면 된다.

... CTS 지금 ...

“할랄푸드, 이슬람이 온다” “동성애에 관한 불편한 진실”

2016 CTS 특별기획 프로그램

올바른 기독교 문화 전파에 앞장서는 순수복음방송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가 2016년 특별기획 프로그램 《할랄푸드, 이슬람이 온다》와 《동성애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각각 오는 22일(월), 29일(월) 오후 6시 2주일에 걸쳐 방송한다.

2016년 현재 범국가적으로 다양한 이슈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할랄푸드’와 ‘동성애’의 전반적인 실태를 사실적으로 파헤쳐 한국교회 및 사회를 위협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전문가들의 대안까지 집중 조망했다.

《할랄푸드의 오해와 진실 ①》 깨끗하고 안전한 할랄푸드?!

웰빙이란 이름 속에 숨겨진 할랄푸드의 실태를 파헤친다.

최근 ‘할랄푸드(Halal Food)’ 육성정책을 본격화하며 전복 외산 식품클러스터에 전용단지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힌 정부 정책에 따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할랄 그리고 이슬람.

CTS는 대중들에게 ‘웰빙,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려진 할랄푸드의 과장된 효능과 대비되는 전인하고 비위생적인 도축방식’을 집중 취재하여 그 실태와 위험성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슬람을 이해하기 위해 까다로운 인증절차를 밟는 할랄푸드의 방식이 마치 안전한 식품으로 만들기 위한 절차로 둔갑되었던 사실과 율법에 따라 동물의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 한 쪽 다리를 매달

아 모든 피를 빼내는 등 잔인한 도축방법과 피로 범벅이 된 도축 현장의 비위생적인 모습을 여과 없이 전달해 그 심각성을 알린다.

《할랄푸드의 오해와 진실 ②》 ‘새롭게 떠오르는 블루오션 할랄푸드?!

할랄푸드 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의혹과 파생된 문제점을 진단한다.

‘할랄푸드’는 과연 식품 업계만의 문제일까? 취재 현장에서 만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할랄시장 육성, 곧 이슬람 문화권의 우리 사회 유입은 이슬람 문화권의 허용과 확장, 더 나아가 안보를 위협하는 불안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에 할랄 전용단지가 생길 경우 도축은 물론 포장에서 운송, 보관까지 유통 전반에서 비할랄인 ‘하람’과 철저히 분리가 되어야 하는 이슬람의 율법에 따라 무슬림 관리자의 고용은 불가피할 것이며, 이는 할랄푸드를 통해 이슬람교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견한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지역은 할랄산업을 허용함으로써 유입된 무슬림들로 인해 다문화시대를 역행하는 자본과종신주의적인 마을 형성, 여성인권 문제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알고 있다. 특히 영국은 무슬림의 정착으로 교회가 몰락하고 교회가 이슬람 성전이 되는 비극적인 현실에 이르렀고 CTS 특집 프로그램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머지않아 우리나라에도 발생할 것이라는 문제점을 시사한다.

목양시론

유만석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美 성소수자 인권대사의 방한 활동은 주제넘은 짓

보도에 의하면 미국 국무부 최초의 성소수자 인권 특별대사인 랜디 베리 특사가 지난 11일 한국을 찾아 국내 최초로 동성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 영화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퍼포먼스 대표, 9개 대학의 성소수자 동아리 대표 등, 소위 국내 성소수자와 인권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나라의 성적 소수자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지난해 8월, 미국의 최고령 연방 대법관이며, 민권 운동가인 루스 베버트 기즈버그(82)가 대법원의 초청에 따라 방한하여 600여명의 법관들을 모아놓고 ‘양국의 성소수자 운영현황과 소수자 보호와 인권 등’을 주제로 강연하고, 대표적인 성소수자들과 인권운동가들을 만나 대화를 가진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들의 방한 일정의 대부분은 성소수자 보호와 인권을 빌미로 한국사회에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정부의 성소수자 인권외교의 일환이다.

작년엔 기즈버그 대법관이 한국사회의 비성향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동성혼인 비송사건이 재판에 계류 중인 시점에 방한하여 압력을 가하 하더니, 이번엔 성소수자 인권 특별대사인 랜디 베리 특사가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92조6(군내에 동성애 처벌조

항의 위헌심판 청구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성소수자들과 동성애인권운동가들을 만나 무언의 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의 방한 활동의 공통점은 미국의 국력을 등에 업고 노골적인 성소수자 지지와 성소수자 보호 인권 운동을 통해 판결을 앞두고 있는 법관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시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기즈버그는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은 변화할 수밖에 없고, 변화할 것이다. 변화한다는 믿음을 갖고 용기를 내라. 미국도 변화가 네덜란드보다 늦었다. 차근차근 가면 되지 않겠나?”라고 격려하기까지 했다.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도 작년 6월의 제16회 서울광장 퀴어축제에 참여하여 노골적인 동성애 지지활동을 과시함으로써 건전한 한국인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에 원조중단을 들먹이며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동성애 합법화를 요구했다가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단호한 거부로 개망신을 당했다.

급변 성소수자 인권 특별대사인 랜디 베리의 특사의 방한은 기즈버그 대법관 방한에 이은 연속선상의 활동으로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더불어 미국이라는 막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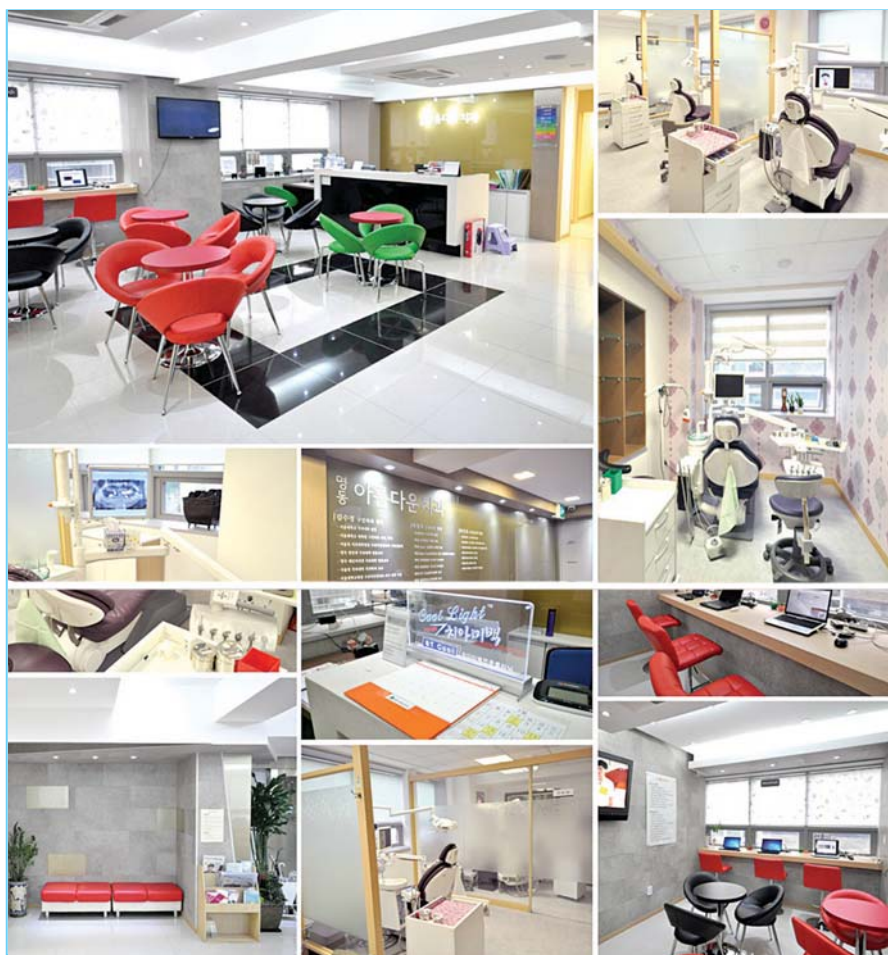
지법 도입을 대한민국에도 강요하려는 인권정책 추진의 일환이다.

작년 6월 28일,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는 극소수의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창조질서를 깨뜨리고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역차별을 강요하는 비성직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으로 미국의 가치를 알기에 부끄러지는 최악의 판결이었다.

미국은 자국의 방종과 타락의 정크(junk) 성문화를 약소국가와 우방국가에게 강요하지 말라!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에이즈의 망국적인 피해와 생명의 위협을 절감하고 있기에 4억 달러라는 막대한 원조를 포기하면서까지 동성애 합법화 압력을 이겨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의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

성소수자 인권 특별대사인 랜디 베리 특사의 한국은 물론 동남아에서 동성애 조장과 확산, 동성결혼 합법화를 부추기는 망동을 단호히 거부한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을 방종과 타락과 부패로 몰아가는 저질의 미국문화를 강요하는 것은 할랄국가에게 해서서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다시는 이 같은 강요행위를 삼가하기를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청한다.



명동아름다운치과
MYEONGDONG AROMADOWN DENTAL CLINIC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와 업무협약

명동아름다운치과의원

사랑과 믿음으로 진료하는 명동아름다운치과의원입니다.

다년간 임상경력과 함께 믿음의 뜻을 품은 치과입니다.

구강건강을 통한 마음과 치아가 아름답게 웃을수 있도록 성심껏 진료하겠습니다.

진료안내 : 임플란트, 치아교정, 심미보철, 어르신을 위한 틀니, 보철진료
평일 진료시간 : 오전 9:30분 ~ 오후 6:00 점심시간 오후 1시 ~ 2시
야간진료 : 오후 9시까지

오시는길

지하철 4호선 명동역 4번출구 50m
직진 세대빌딩 8층

주소

서울시 중구 회현동3가 11-3
세대빌딩 8층

찾아오시는길



문의 / 상담 : 02-777-1224 , 778-122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16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고 영 권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운영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김 임 복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010-5614-2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임 중 달 목사)

예하성전북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금 제도, 본 교단 총회 신학, 목회대학원 진학, 목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
- T E L : 063)251-3978~9
- F A X : 063)251-3980
- e-mail : sunshalom@naver.com



(학장 김 상 용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여 목사 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 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청정지역 가평에서 비가림으로 재배해 저온 착즙한

‘운악산포도즙’ 판매

http://woonaksanpodo.com



공기 좋고 물 맑은 청정지역인 가평에서 비가림으로 재배하는 ‘운악산 포도’는 산간 고랭지 포도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차이가 심하여 당도가 높고 상큼한 맛과 향이 높은 ‘우수한 포도’입니다.

저희 운악산포도작목반에서는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에서 재배되는 ‘운악산 포도’를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게 자체적으로 설치한 ‘저온착즙기’에서 착즙, 밀봉·포장하여 소비자 분들께서 믿고 드실 수 있도록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운악산포도즙	저온착즙-운악산포도즙	저온착즙-운악산포도즙	저온착즙-운악산포도즙	저온착즙-운악산포도즙	저온착즙-운악산포도즙	저온착즙-운악산포도즙
	110ml 30봉 1박스(택배비포함)	110ml 50봉 1박스(택배비포함)	110ml 30봉 2박스(택배비포함)	110ml 50봉 2박스(택배비포함)	110ml 30봉 3박스(택배비포함)	110ml 50봉 3박스(택배비포함)
	28,000원	43,000원	50,000원	80,000원	80,000원	120,000원

031-585-7919, 010-2225-3806
평일 :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 오전9시~오후3시
계좌번호 : 농협 351-0663-7414-03(예금주:이봉기)



운악산 포도즙 위치 : 경기도 가평군 하면 하판리 48번지
하판리 영농조합법인 전화 : 031)585-7919



운악산 포도 재배 현장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교역자국 춘계 성령충만수련회

주제 :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롬12:1-2)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땅들은 희망의 새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양지를 섬기시는 전국 여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치유하심과 희망의 싹을 틔우도록 저희 여교역자국이 정책위원장님을 모시고 춘계 성령충만수련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성령충만함을 받고 큰 부흥을 이루는 2016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교역자국 국장 탁정신 목사

강사



조용목 목사
교단 정책위원장
은혜와진리교회 담임



조남영 목사
경기중앙지방회 중경회장
가평순복음교회 담임

- | 일 시 | 2016년 3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 오후 4시 30분
- |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 대 상 | 총회산하 전국 여교역자 전 회원
- | 주 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여교역자국
- | 문 의 | 010-5313-3379, 010-8541-0191, 010-3784-3731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진동용 목사
새소망교회



고문 정부웅 목사
대림별교회



자문 신동숙 목사
순복음임마누엘교회



국장 탁정신 목사
온선교회

조직

임원단

차장



순복음천양교회
김효신 목사

행사부장



예전순복음교회
최영희 목사

경조부장



회복순복음교회
김순자 목사

복지부장



순복음돈교회
이경자 목사A

홍보부장



순복음반송교회
현순목 목사

기획부장



임신별교회
조영란 목사

선교부장



순복음참좋은교회
조은주 목사

친교부장



순복음기쁨과기쁨교회
이명순 목사

봉사부장



군업순복음교회
김중애 목사

정보통신부장



부활순복음교회
신영희 목사

전국지부장

서울중부지방회 지부장



사랑과평화교회
홍현자 목사

서울강남지방회 지부장



순복음사랑교회
이현목 목사

서울중앙지방회 지부장



예수향기교회
장에스터 목사

경기지방회 지부장



은누리순복음교회
최경자 목사

경기중앙지방회 지부장



행복한순복음교회
김정순 목사

경기남부지방회 지부장



헬몬교회
김남순 목사

안산시흥지방회 지부장



민음교회
이경자 목사B

경기북부지방회 지부장



용성한성교회
서석자 목사

영인지방회 지부장



순복음성광교회
김인희 목사

일산지방회 지부장



신영광교회
실수자 목사



김포지방회 지부장



강원동지방회 지부장



강원서지방회 지부장



대전지방회 지부장



충남지방회 지부장



청주지방회 지부장



경남지방회 지부장



영남동지방회 지부장



부산지방회 지부장



광주지방회 지부장



성령말씀교회
임성애 목사



임마누엘수원교회
심혜원 목사



노동순복음교회
백영자 목사



순복음동신교회
장복례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심연숙 전도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여교역자국

국장 탁정신 목사

목양문학회 제25회 정기총회

대표회장 고환규 목사 선출 등 임원개선

한국목양문학회는 지난 1월 29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제2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25회기 대표회장에 고환규牧사를 선출했다. 총회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회장 홍분표 목사의 사회로 김남식 목사의 기도, 홍분표 목사의 시 30:11절을 본문으로 한 감사하며 춤을 추며 시를 쓰며 라는 제목의 설교, 김재남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총회는 개회선언에 이어 전 회 의록 낭독, 회계보고를 유인물로 받은 후 임원선출에 들어가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하고 각종 안건은 임원진에 위임해 처리하기로 했다.

한국목양문학회는 지난 1990년 창립한 한국기독교

교문학계의 권위있는 단체로 매년 기독교 문학부문에 현저한 활동을 펼친 문학인을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김지향 시인을 비롯한 박영률 목사, 김순권 목사, 박재전 목사, 고훈 목사, 김남식 목사, 박종구 목사 등이 목양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날 새로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고환규 목사 △부회장 김태영·박상기 목사 △총무 윤승열 목사 △서기 전혁진 목사 △회계 조성국 목사 △감사 전담양·김남식 목사 △편집위원장 홍분표 목사 △심사위원장 김재남 목사 △운영위원장 박재전 목사 △기획운영위원장 최세균 목사



CBS 소년소녀합창단 ‘사랑의 하모니’ 열창

CBS 소년소녀합창단이 2월 13일 오후 5시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에서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지난 2014년 처음 발매한 음반 ‘꿈의 협주곡 (Dream Concerto)’과, 지난 해 음반 ‘늘(Always)’에 이어, 올해에 내놓은 3집의 테마가 ‘보배(Treasure)’로, 이번 정기연주회의 주제가기도 하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이번 정기연주회에서 CBS 소년소녀합창단(지휘 박병화)은 ‘세상을 보라(Look at the World)’ 등 주옥같은 명곡들과, ‘어린 시절 (Playground in my Mind)’ 등 추억의 팝송을 선사할 예정이다며, 게스트로 출연하는 CBS 코이아와 오보에 스트 윤해원, 오민정이 각각 ‘오페라 웰리엄텔 서곡’과 ‘가브리엘의 오보에’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찬양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찬양의 화음을 들려주고 있는 CBS 소년소녀합창단은 이번 정기연주회에 다문화가정을 초청하는 ‘객석 나눔’ 기획을 진행, 더욱 뜻깊은 자리로 만들 계획이다.

한편, 1994년에 창단돼, 9세부터 16세까지 약 60여 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CBS 소년소녀합창단은 국내외 정상급 국인들의 초청무대에 설만큼 이미 그 음악성을 인정받아 한국의 ‘국가대표 민간 문화외교사절단’이라는 별을 듣고 있다. 과거 선진 20개국 정상들이 참가한 G20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청와대 국빈만찬, 박근혜 대통령 미국방문 한미우호의 밤 워싱턴 DC 공연 등을 가진 바 있다.

하이패밀리 가족동작치료 센터 ‘이모션코칭’

“부모들의 마음치유, 감정치유가 시급하다”

하이패밀리 가족동작치료 센터(원장 김향숙)는 2월 23~24일까지 제26차 부모들을 위한 “이모션 코칭(emotion coaching)”을 개최한다. 이모션 코칭은 부모들을 “감정이 주인이 아닌, 감정의 주인인 삶! 감정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닌, 감정을 지배하는 삶”으로 코칭한다. 코칭도구는 언어적 강요가 아닌, 신체 움직임이다. “모션(motion)으로 이모션(emotion)”을 코칭한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은 따로 노는 인지교육

이 아니다. 몸의 직접경험을 통한 인지·정서·행동의 전인치유며 통합교육이다.

그 어느 때보다 이모션 코칭이 시급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부녀여중생 백골사신 사건과 부녀초등생 시신훼손사건 등 전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전형적인 아동학대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 아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학대나 폭력이 지행된다. 부모자격이 없는 부모



가 부모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명 독친(toxic parent)이다. 수잔 포워드의 “독이 되는 부모가 되지 마라!”에 나오는 신조어다. 독친인 줄도 모른 채 사랑을 구실로 독을 내뿜는 것이다. 일명 57지 사랑의 독이다. 소동장애, 분노조절장애, 자녀조종, 역할부능, 부부갈등이 그것이다.

이 중 아동학대와 직결되는 독은 부모의 조절되지 않은 분노다. 화를 참지 못하는 게 화근이다. 하이패밀리 가족동작치료 센터가 2015년 5월 크리스천 부모 322명, 자녀 424명을 대상으로 각각 부모역할건 강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모들은 화를 거의 안 낸다고 답했지만(69%), 자녀들은 64%가 화를 낸다고 상반된 응답을 하고 있다. 분노조절여부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부모들은 화를 가리אות하는 법을 안다고 답했지만(91%), 자녀들은 64%가 부모가 화를 가리אות 할 줄 모른다고 응답했다. 부부갈등노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자녀의 경우 무려 72%가 화해보다 더 무서운 모습을 더 많이 보고 자라는데, 특히 자녀의 47%가 부모들이 부부싸움 후 자신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고 응답했다.

마지막 남은 겨울방학! 부모로서의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다. 마음여행을 떠나는 적이기도 하다. 이모션 코칭은 나를 위해 떠나는 최고의 여행지다.

문의 및 접수) 031-772-3223

목회자유가족협의회 간증집 출판감사예배

“함께라서 오늘 더 행복합니다”

목회자유가족협의회는 지난 19일 여전도회관에서 ‘목회자유가족협의회 간증집 출판 감사예배’를 드렸다.

인기 중 별세한 목회자의 사모들(홀사모)로 구성된 목회자유가족협의회(회장 유숙연, 이하 목유협)는 2009년 첫 간증집 “홀로 하늘을 바라보며”(한국장로교출판사)를 출간한 지 6년이 지나 두 번째로 간증집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번 간증집에는 그동안 새롭게 화원이 된 홀사모들의 사연, 힘겹게 가정을 책임져온 사모들의 눈물겨운 이야기, 사별 후 겪었던 가슴 아픈 경험들,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재기의 과정 등이 “함께라서 오늘 더 행복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롯이 담겨져 있다.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떠나간 사람을 그리워하며”에서는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과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 겪었던 마음의 부침들을 담았다. 2부 “상



실의 아픔을 넘어 미래로”는 남편 목사님의 반자리를 채워주셨던 하나님은 위로의 손길과 아씨의 죽음 앞에서 함께워 했던 자녀들의 치유과정, 눈앞에 펼쳐진 현실적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자 하나님을 붙들었던 신앙의 간증을, 끝으로 3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사별 후 홀로 가정과 자녀를 책임지기까지의 과정들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출판 감사예배는 현 목유협 회장 유숙연 사모의 사회, 목유협 후원이사장 김의식 목사(지유하는교회)의 설교, 후원이사 안광수 목사(수원성교회)의 격려사, 목유협 중창단의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전도는 왜 해야 하는가?

오프로드 길을 달리기를 즐기는 마니아들은 연비도 좋고 조용하고 실내도 섬세하고 예쁜 차 보다는 실내가 부락하고 엔진소리가 귀에 거슬릴 정도로 시끄럽고 연비도 많이 들고 마력수가 높은 그런 차를 선호한다. 이유는 한가지다. 운전할 맛이 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무나 탈 수 없는 차이기 때문이다. 요즘 교회를 보면 너무나 여성적이고 섬세하고 편리하고 사람을 편하게 한다.

전도도 마찬가지다. 선물을 주고 만날 때마다 인사를 깎듯이 하고 비위를 맞춰주고 환경을 고려한 전도가 대세다. 그러나 그러한 전도가 효과가 있다면 왜 교회는 점점 쇠퇴하는 것일까? 나는 종종 좀 더 성경적이며 이성적이고 부락하지만 힘 있고 박력 있는 남성적인 전도법을 없을까 찾아보고 있었다. 마치 힘 있는 사륜 구동차를 찾은 것처럼.

왜 전도해야 하는가? 이러한 때 박영수 목사의 가족세트 전도법을 알게 되었다. 제목부터 이성적이고 공격적이다. 마치 사륜구동으로 눈길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지프차 같다고나 할까! 가족세트라는 말부터 전도하겠다는 애진진 순직진 언어의 상징성이 숨겨져 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나 사업체에서나 장소 구별 없이 지나가는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로 전도의 출발을 삼는다. 이는 거의 혁명적인 발상이다. 한 술 더 떠요 1:12 말씀을 따라 하라고 권한다. 그리고 영접기도를 시킨다. 아무 도구도 없이 말이다. 이어서 수절을 꺼내들고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까지 빠짐없이 적고 그 주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겠다는 약속까지 받고 당일 심방하며 교회까지 불린다.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서 이런 전도법을 본 분은 아마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 박영수 목사의 가족세트 전도법을 보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났다. 바로 폴란드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1473-1543)다.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태양주위를 돈다는 기하 혁명적인 지동설을 주장했다. 과거의 이론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주장이었다. 이것은 목숨까지 거는 이론이었기에 생애 말년에 가서나 이 이론을 내세웠다.

박영수 목사는 이러한 과거의 전도법 한국에 누락처럼 퍼져 있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관계전도, 부침개전도, 진도개전도, 고구마전도, 호떡전도, 해피데이전도, 도 시작전도 등 우후죽순처럼 퍼지고 있는 사람중심 전도에서 코페르니쿠스처럼 하나님 중심 전도, 성경적인 전도, 도구가 필요 없는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전도가 맞다고 외치면서 외롭게 그 길을 고수하는 것을 보고 감히 추천하고 싶다.

과거의 전도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전도법이다. 그러니 부흥이 없는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가족세트 전도법을 숙지하여 전세계 교회가 깨어나길 기대한다.

박영수 목사처럼 숙달되기까지는 많은 기도와 성령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한은 말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거절과 좌절과 핍박을 넘어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제 2의 박영수 목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전에서 중요한 목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6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남일공예

50년 전통의 남일공예 입니다.

남원 전통상, 목기, 교자상, 찻상, 병풍 판매합니다.

본 제품들은 남일공예에서 직접 생산하여 도매로 판매합니다.

좋은 원목으로 모든 공정을 남원에서 직접 제작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상 주문제작
생산자 직거래라 비용이 저렴합니다

오시는 길 전북 남원시 쑥고개로 219(어현동 470-16)
☎ 상담전화 063-632-3332, 8838 / 010-3651-7838 ☎ 택배판매 가능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 130819-중-47402호

피부·성형·비만 클리닉 연세나눔의원

진료내용 1.색소클리닉 2.여드름클리닉 3.흉터클리닉 4.비만클리닉 5.성형외과(쌍꺼풀수술, 코수술, 지방흡입, 지방이식)

월·수·금요일 야간진료 오후 9시까지

(02) 2666-3616 우장산역 4번출구 미즈메디병원 옆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01-10 호경빌딩6층 www.shareclinic.com

대림벤엘교회

창립 29주년 기념 전도사·권사 은퇴예배

29성상(星霜) 고난과 역경 딛고 부흥 이뤄
복음의 진리 사수, 빛과 소금 사명 감당 다짐



담임
정부용 목사
교단 전직 부총회장

대림벤엘교회(담임 정부용 목사) 창립 29주년 기념 및 전도사·권사 은퇴예배가 지난 14일(주일) 저녁 7시 30분 대림동 대림벤엘교회 대성전에서 드려져 29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사역자로서 직분자로서 섬겨온 공로와 헌신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

이날 예배는 대림벤엘교회 조선남 수석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조영란 목사(교단 여교역자국기회부장, 일산벤엘교회 담임)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살롬찬양대의 찬양, 교단 증경총회장 임종달 목사(전주은혜와진리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임 목사는 시 84:4 말씀을 본문으로 '주의 집에 사는 복 있는 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29년 전 이곳 대림동 복음의 불모지에 하나님께서 대림벤엘교회와 지도자로 정부용 목사님을 세우시고

선한 싸움을 감당해 오셨음을 감사드리다"고 전하고 "교회는 천국열쇠를 받는 곳이며, 교회는 축복의 집이며,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라고 강조한 뒤 이를 위해 전 성도들이 담임 정부용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더욱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당부했다.

이어 주강육 목사(대림벤엘교회 교육담당)의 헌금기도, 전주은혜와진리교회 강정희 목사의 헌금찬양으로 1부 예배를 드린 후 곧바로 2부 순서로 은퇴식을 거행했다.

정부용 목사는 정진영 원로전도사와 오분순, 이광년, 권영자, 이신도 원로권사에게 그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온 공로를 치하하고 은퇴패를 수여했다.

계속해서 교단 여교역자국장 탁정신 목사의

축사, 에이레네선교단 어머니대성당의 공연, 교단 증경총회장 김인찬 목사의 권면, 김성환 집사의 축가, 대림벤엘교회 담임 정부용 목사의 인사말씀, 임종달 목사의 축도로 교회창립 29주년 기념 및 전도사·권사 은퇴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대림벤엘교회는 담임 정부용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되어 창립된 이래 29년이 되기까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어떠한 고난과 술한 어려운 일들을 견뎌내며 오늘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귀한 교회로 성장을 거듭했다.

대림벤엘교회 담임 정부용 목사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더욱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며 빛과 소금이 되어 귀한 사명감당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설교
임종달 목사
교단 증경총회장



권면
김인찬 목사
교단 증경총회장



축사
탁정신 목사
교단 여교역자국장



특송
강정희 목사
전주은혜와진리교회



사회
조선남 목사
대림벤엘교회 수석목사



대표기도
조영란 목사
일산벤엘교회 담임



헌금기도
주강육 목사
대림벤엘교회 교육목사



에이레네선교단
어머니대성당의 공연



살롬찬양대의 찬양



6만여 교회 1200만 평신도 연합단체 출범

안티기독교 방어·교회와 목회자 섬김 등 앞장 ‘한기평총’ 창립 앞두고 지도자 초청 좌담회 개최

6만여 교회 1200만 평신도의 연합단체를 표방하는 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한기평총)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한기평총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주태 장로)는 13일 오전 서울 지하본로 AW컨벤션센터에서 이를 위해 ‘평신도 지도자 초청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좌담회에는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 상임대표 김영진 장로, 세계성서학운동본부 공동회장 전용태 장로, 한국기독교평신도세계협의회 대표회장 심영식 장로, 서울여대 전 총장이광자 권사 등 평신

도 지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1부 예배에서는 최일규 장로의 사회로 이상형 사관(구세군)이 ‘왕 같은 제사장들’(렘전 2:9)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 이강욱·심영식·김형원 장로의 인도로 ‘북한의 핵 포기과 평화통일’ ‘한국교회의 위상 회복과 성장’ ‘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 창립’을 위해 특별기도의 시간도 가졌다.

2부 간담회는 신연옥 집사의 사회로 이주태 준비위원장의 인사 후 참석자들이 각자의 의견을 피력했다.



준비위원회 이주태 장로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한국교회를 섬기고,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연합회가 되어, 한국 기독교 130년 역사를 본받아 새롭게 평신도 운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회개·성결·헌신의 슬로건 아래 평신도가 ‘예수님을 닮은 지체들’(빌 2:5)로 성장하도록 정진하겠습니다”고 했으며 이어 “여러 지도자들의 자문과 지도편달을 청정하여 한기평총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뜻을 반영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기평총은 각 교단과 단체 및 교회를 넘어 독자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평신도의 사명 감당과 권리 회복, 기독교의 신뢰 제고를 위해 연합하며 정책과 사업을 개발·시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평신도가 나서 무너져 가는 가정과 교회를 바로 세워,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성결·화해운동을 펼친다.

구체적 실천사항으로는 나부터 사교·용서·사랑하기를, 중점사업으로는 원로목회자 섬김, 다음세대 육성, 안티기독교에 대한 방어 등을 꼽고, 매일 정시기도운동과 이단 및 이슬람 저지운동 및 국산 품애운동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기평총은 지난 2015년 10월 28일 설립을 위한 논의를 처음 본격적으로 시작해, 이후 두 차례 더 모인 데 이어 이날 좌담회를 열었다. 발기인대회는 오는 3월 28일 오후 6시 AW컨벤션센터 3층 크리스탈홀에서 개최된다.

문의: 준비위원회 사무국(TEL 02-3394-5405, E-mail: upress@naver.com)

루터대 개교50주년 기념 ‘평생교육원’ 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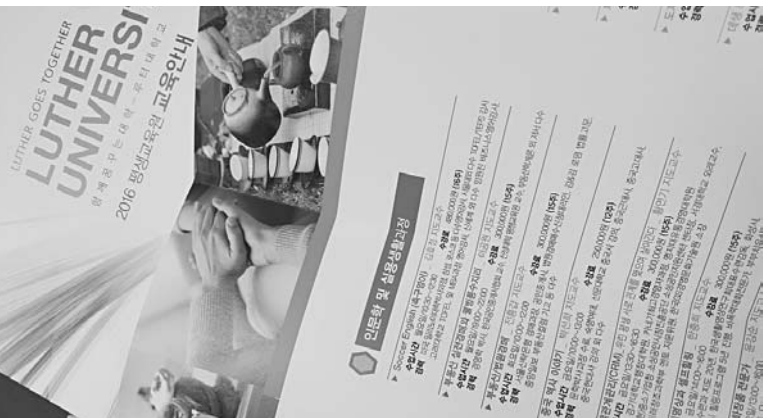
지역주민 위해 아동미술심리지도사 등 50여 과목 개설

루터대학교(총장 김영옥)는 개교 50주년을 기념해서 지역주민의 사회교육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키면서 자기계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명품 평생교육원을 다음달 21일에 개원한다.

루터대학교 미래전략사업단 조원환 단장은, “급변하는 사회추세와 재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수개월 동안 지역사회와의 요구와 수요를 분석하고 준비해 왔으며 수많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엄선해서 꼭 필요한 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루터대학교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에는 미용(헤어, 네일, 메이크업, 피부) 국가고시 자격증 과정을 비롯해 음악체육과정, 아동미술심리지도사 2급 과정 등의 민간자격증 과정, 인문학 실용생활과정, 창작예술과정 등 50여 가지에 이르는 과목이 개설된다.

루터대학교는 최고의 과목을 개설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수도권 일원에서 활동하는 1백 30여 개 교육기관과 산업체, 기관,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각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경력이 입증되고 해



당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교수들을 엄선해서 지도교수로 참여하게 됐다.

각 과정의 지원자격은 남녀 누구나 가능하며 교육기간은 3월 21일(월)부터 7월 2일(토)까지 5개월이며, 원서접수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루터대학교 평생교육원 전화 031-679-2370~1번으로 문의, 접수하면 된다.

*루터대학교 홈페이지 <http://lu.ac.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Fax: 031-283-1505 송부 후 확인

사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때

북한의 폭군 김정은 집단은 자멸을 자초하는 핵무기, 미사일 도발을 즉시 중단하고 회개, 참회하여 세계 평화 자유민의 광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 성경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마 8:36)라고 말씀하였다.

수소탄을제조하고 1만 킬로 이상을날아가는 대륙간탄도탄을 만든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폭살 당한다면 과연 무엇이 남는다는 말인가? 리비아의 카다피와 이집트의 무바라크, 이라크의 후세인 과거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등 금세기 최악의 독재자나 폭군들이 어떤 말로를 맞이했나를 분명히 기억하고경거망동을 삼가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내리자 김정은 집단은 서울에서 불과 60여 km 떨어진 개성공단 지역을 이탄바 군사통제지역으로 선포하고 우리 기업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강제 몰수했다. 그 지역에 개성공단 개설 이전에 주둔했던 북의 최정예 장사포 부대와 공격 특수부대를 배치하여 대남 도발 무력을 대폭 강화하고 대남 공격을 가할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김정은 집단의 발작적 양상에 대처하여 우리 정부는 최대한 군사력을 동원한 기동훈련으로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한미 연합군은 미국의 핵 함모와 핵 잠수함 및 패트리어트 미사일 최신 무기를 한국에 배치하기 시작했다. 미군이 최강 폭격기인 B-52와 최신 스텔스 랑터 전투기 등도 한반도에 곧 전개한다고

한다. 만일 유사시에 미국의 최정예 무력이 북한 김정은의 은거지와 각종 대남 공격기지를 기습 강타한다면 평양과 김정은 일당은 눈 깜짝할 사이에 잿가루가 된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일치한 예측이다. 김정은 집단은 이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정은 집단에게 묻는다. 과연 백성들이 굶주려 죽어 가는데, 민생을 피탄 속에 두고 온갖 달과 재정을 굶어 모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하면서 발아하는 길이 살길인가, 아니면 이란과 같이 대미 평화협상으로 핵무기와 미사일개발을 포기하고 경제부흥 지원을 받으면서 전 세계 평화광장으로 나와 환대받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북한 김정은이 어떤 폭군인가? 친 고모부 장성택을 비롯 북한군 총 참모장 리영길 등을 무참히 숙청하여 살해하는가 하면 최측근 대남 총비서 김양민 교통사고사 위장 등 그가 하는 행위를 보면 국악무도한 폭군으로서 자신의 인위가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할 경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일탈 행위로 무모한 대남도발을 능히 저지를 수도 있는 성향의 ‘사이코패스’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1천만 성도들의 구국의 피땀 어린 기도가 그 어느 때 보다 긴요하다 할 것이다. 이 나라에 전쟁과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임을 알 수 있다.

서울시 교육감, 무슬림·동성애 옹호 사실인가?

지난 1월 13일 서울시교육청이 신학 종교교 교사들에게 “세계시민교육 자격연수”라는 것을 실시하면서 ‘무슬림(회교신도) 인구 유입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교육하는가 하면, 동성애를 미화하는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학교에 가서 배운대로 가르치라고 지시했다고 한 교사가 인터넷으로 고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조현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것이 사실인지 밝히고 그러한 교육 내용의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 것을 요망한다.

서울시 교육청이 실시한 이 연수를 받은 한 교사가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초반부터 무슬림들의 유럽 유입을 옹호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무슬림이 유럽의 저출산 인구 감소의 대안”이라 교육하고, 무슬림에 의

한 성추행 문제를 거론하는 때에는 “여성들이 무슬림 이주자들에 의해 고동 받는지, 바로 옆의 남성들에 의해 고동 받는지 생각해보라”면서 교사들에게 이슬람을 옹호하는 편파적 학습을 했다고 한다. 또한 이 교육 과정에서, 동성애자들끼리 서로 애무하는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동성애를 미화시켰다 한다.

이 연수는 서울시내 종교교 교사라면 반드시 수강해야 하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교사들이 본인들의 학교에 돌아가서 배운 것과 똑 같이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라고 지시했다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사리 분별없고 부도덕한 교육감은 퇴출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인·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150-105 서울시 영등포구 영평로 22 다길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WEA 세계지도자대회 취소를 촉구한다”

복음주의가 어떻게 로마교 기틀력의 비 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교리와 제도를 존중하고 그들과 협력하고 포용하고 일치를 도모한단 말인가?

루터는 로마교황을 “적그리스도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있는데 … 그는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였으며,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자신이 만든 계명을 높였다. … 우리는 여기서 교황권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권좌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바이다.”(출처 : 루터, The Prophetic Faith of Our Fathers(우리 교부들의 예언 믿음), vol.2, p.291, 256) 라고 하였고, 칼빈은 “나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 그는 적그리스도이다.”(출처: 칼빈, Tracts(소책자), vol.1, p.219-20) 라고 하였으며 존 낙스는 “수 세대에 걸쳐서 교회 위에 군림해 온 교황권이 바로 바울이 말한 적그리스도요 멸망의 아들이다.”(출처: 존 낙스, The Zurich Letters(취리히의 편지), p.199)라고 하였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에는 “로마 기틀릭 교회의 교황은 어떤 의미론인지 교회의 머리가 아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요 불법의 사람요 저주의 아들, 곧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과 반대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출처: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6항) 라고 증거하고 있다.

위와 같이 믿음의 선진들은 목숨건 저항과 성경적인 개혁으로 초대교회로 회복하여 오늘 까지 역사를 이어온 것이 정통기독교교회이다.

그러나 복음주의라고 하는 WEA(세계복음주의연맹)는 비 성경적이고 반 기독교적인 교리와 제도 위에 세워진 로마교 기틀력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성경적인 교리와 제도를 제시하여 바른 길로 인도 하려 고는 하지 않고 도리어 존중하고 포용하며 그들과 오히려 일치를 도모한다. 이 같은 WEA의 행위는 예

수님의 죽으심과 믿음의 선진들이 흘린 피로서 세워진 역사적인 정통기독교교회가 아니며 반역주의이다.

뿐만 아니라 WEA는 종교다원주의 WCC와도 뜻을 같이하며 협력한다. 이 같은 체제를 가진 WEA는 복음주의가 아니라 신복음주의로서 1951년도에 세계복음주의협의회로 출발하여 2001년도에 WEA로 개명한 것이다.

복음주의 핵심인사는, “WEA는 20세기 신학적 자유주의와 신학적 근본주의 사이에서 미국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산물이다. 이 운동은 한국과 전 세계로 번졌고 그 영향권 안에서 한국복음주의운동도 출발했다.”는 중언처럼 WEA는 역사적인 정통기독교교회가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다원주의 WCC와 비 성경적이고 반 기독교적인 교리와 제도 위에 세워진 로마교 기틀력까지 문제 삼지 않고 받아들이는 포용주의이며, 이들과 협력하며 일치를 도모하는 역사적인 정통기독교교회에 대한 반역하는 정체성을 가졌다. 이 같은 WEA 정체성과 행위는 역사적인 정통 기독교회를 지키기 위한 믿음의 선진들의 귀한 희생들을 헛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반역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보수를 지향한다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어떻게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WEA 세계지도자대회를 주관단체가 되어 한국교계 안에서 개최한단 말인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이 같은 처사는 이적행위기에 WEA 세계지도자대회를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역사적으로 이어져온 정통 기독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신복음주의 WEA를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주후 2016년 2월 6일

WEA 반대운동연대 회원 일동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제64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

- 아 래 -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64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6년 3월 21일(월) 오후 1시 (12시부터 점심식사)

2) 장 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3월 11일(금)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6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총 회 장 목사 진 등 용
총 무 목사 김 병 묵

150-1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Fax 02)2677-5181 http://www.aogk.org

홈페이지: www.agpgs.or.kr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2016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사안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하여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과 정	수업 년 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 (M.M)	2년4학기 (40학점)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 ②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③ 추천서
- ④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⑤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⑥ 가족관계증명서
- ⑦ 반명함판 사진 4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 2015. 12. 07(월)부터
- ② 원서접수 : 2015. 12. 28(월)~2016. 02. 19(금) 17:00시까지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 나길 8
(총회목회대학원 교학처)

- ④ 서류심사 및 면접 : 2016. 02. 22(월) 장소:총회목회대학원
- ⑤ 합격자발표 : 2016. 02. 23(화) 개별통보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5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수여한다(교단 인정).
- ② 본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 주요일에 실시한다.
- ④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3

- 원서접수 : 2015. 12. 28(월)~2016. 02. 19(금) 17:00시까지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3

홈페이지: www.agtc.or.kr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2016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주·야간) 모집

● 설립목적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년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4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 2015. 12. 07(월)부터
- ② 원서접수 : 2015. 12. 28(월)~2016. 02. 19(금) 17:00시까지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총회신학교 교학처)
- ④ 필기시험 및 면접 : 2016. 02. 22(월), 장소:총회신학교
- ⑤ 합격자발표 : 2016. 02. 23(화), 개별통보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3

- 원서접수 : 2015. 12. 28(월)~2016. 02. 19(금) 17:00시까지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3